

전남도, 추석 성수기 대비 축산물 안정 공급에 총력

명절 전까지 민관 합동감시반 운영·도축장 운영 시간 연장 등

전남도는 추석 성수기에 전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전남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일부터 명절 전까지를 '축산물 특별 관리주간'으로 정해 민·관 합동감시반 운영 및 도축장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이 기간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축산물 최초 생산 소·돼지 도축장 10개소와 선물용과 차례용 축산물가공품 제조·판매업체 128개소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청결 상태, 원료육 취급 상태, 자가품질검사 상황,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

다. 위반업체엔 과태료 부과 등 엄격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물용과 차례용 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평일 도축장 개장 시간을 새벽 5시에서 새벽 4시로 1시간 앞당긴다.

전남도는 축산물 특별 관리주간 동안 시군과 함께 축산물 안전 신고 상황실도 운영한다.

전도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청정 전남에서 생산된 축산물은 신선하고 안전하다"며 "추석에 전국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월 현재 전남지역 축산물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합동으로 표본 조사한 결과 점검한 673개소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도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뀔에 따라 이를 업체와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제 섭취 가능한 기간이다. /서용운 기자



전남도는 추석 성수기에 전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전남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22일부터 명절 전까지를 '축산물 특별 관리주간'으로 정해 민·관 합동감시반 운영 및 도축장 운영시간 연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현대차 아이오닉 5, 카앤드라이버 '2022 올해의 전기차' 선정

주행성능·항속거리·충전속도 등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성 인정받아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2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5가 미국 자동차 전문지 카앤드라이버(Car and Driver)가 발표한 '2022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됐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의 새로운 지평선(The new horizon of EV)'이라는 론칭 메시지처럼 전기차의 지평을 열고 있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전기차 시대를 대표하는 모델로서 인정을 받았다.

카앤드라이버는 아이오닉 5를 포함해 아우디 e-트론 GT, BMW i4 및 iX, 쉐보레 볼트 EV, 포드 머스탱 마하-E GT, 메르세데스-벤츠 EQS 등 20개 전기차 모델을 대상으로 3주간의 엄격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중 아이오닉 5는 19개 경쟁 차량을 제치고 최고의 전기차로 뽑혔다.

평가는 카앤드라이버 에디터들을 통해 ▲차량 가치 ▲주행 테스트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 ▲주행의 즐거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니 퀴로가(Tony Quiroga) 카앤드라이버 편집장은 "아이오닉 5는 주행성능, 항속거리, 충전속도 등 차량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상품성을 보여줬다"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제안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호세 무뇨즈(Jose Munoz)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은 "넓은 실내 공간과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 5를 성공적으로 출시했다"며 "아이오닉 5에 이어 앞으로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 출시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오닉 5는 높은 상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미디어와 고객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2022 월드카 어워드'에서 '세계 올해의 자동차'를 수상한 데 이어 '2022 독일 올해의 차', '2022 영국 올해의 차'에 선정됐으며, '아우토 빌트(Auto Bild) 최고의 수입차(Best Import Cars of the Year) 전기차 부문 1위', '아우토 자이퉁(Auto Zeitung) 전기차 비교평가 종합 1위' 등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카앤드라이버는 1955년 창간 이래 미국은 물론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동차 전문지로, 주행성능, 차량 가치 등에 대한 에디터들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올해 최고의 차 10(10 Best Award winners)', '올해 최고의 전기차' 선정을 비롯 차량 비교 평가 등을 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광주시, 2022 을지연습 실시

광주시는 범 정부적으로 실시하는 2022 을지연습을 군사연습과 연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대응에 집중해 훈련 규모를 축소 시행했지만 올해는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연습을 통해 완벽한 비상 대비태세 확립을 목표로 실제훈련과 시민 안보의식 고취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22일 연습 첫날에는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지역편성행동화 훈련과 기관소산·창설기구 편성 훈련을 실시해 실제 전쟁 상황을 고려한 공직자들의 전시 임무 숙지와 총무사태별 조치사항 등을 처리한다.

연습 2일차에는 전시현안과제 토의로 광주경찰청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빙고을 전남대병원 중앙제어실 파괴 등 다중이용시설 테러와 화재 발생 시 대책에 대한 과제토의 내용을 발표하고, 상호 토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관내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상황과 유사한 모의상황을 가정해 다양한 사건계획을 처리하는 도상연습을 실시하며, 중요시설물(상무공동구) 파손 및 화재 상황에 따른 실제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연습 3일차에는 작기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대피훈련과 다중이용시설 테러·화재 대비훈련을 가정한 도상연습 훈련을 실시하고, 25일 연습 마지막 날에는 전문 사후 강령단의 훈련 강령을 끝으로 정부 연습이 종료될 예정이다.

박남주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올해 을지연습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대만 갈등 등 급속히 냉각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 안보상황을 고려한 실질적 행동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개로 91

84㎡A·B, 113㎡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면상 배당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3자(G)로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시방, 외장재,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계획, 시방을 등 위에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